

「아쓰미장학생 모임」 강연록

일영전후화해 (1994-1998 년)

SGRA이란?

SGRA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긴 유학생 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과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과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와 문제해결에 대한 제언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테마 별로 다분야 다국적 연구자들이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인 데이터의 분석 고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GRA는 어느 한정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 영역을 포괄한 국제적이고 학술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isf.or.jp/sgra/)를 참조해 주십시오.

SGRA 가와라방

SGRA 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 각국의 SGRA 회원 에세이를 매주 수요일에 이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가와라방은 어느 분이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수신등록을 해 주십시오.

<http://www.aisf.or.jp/sgra/>

한국어 버전

일영전후화해 (1994-1998 년)

4

누마타 사다아키 (주 캐나다 대사, 주 파키스탄 대사, 주 영국대사관 특명전권공사)

질의 19

강사약력 25

한국어 버전
Korean Edition

일영전후화해 (1994-1998년)

누마타 사다아키 (주 캐나다 대사, 주 파키스탄 대사, 주 영국대사관 특명전권공사)



오늘은 전후화해 문제에 대하여 학자로서가 아니라 외교의 실무자로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후화해라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1994 년에서 1998 년까지 주 영국대사관에서 두 번째 직위로 근무하면서 무엇보다 이 문제에 관해 경험한 바가 크기에 이를 회고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영국 근무는 그 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1966 년에 외무성에 들어가 연수생자격으로 옥스포드 대학을 2 년간 다녔고, 학위를 취득한 후 런던의 일본대사관에서 1970 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4 년이 지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근무했던 시기인 1960 년대 후반은 아직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포로 문제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가열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근무시기인 1995 년은 전쟁이 끝나고 정확히 50 주년이 되는 해로 이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어 그 처리에 부심하게 되었습니다.

전후처리의 세가지 측면

전후처리에는 세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처리의 문제, 두 번째는 사죄의 문제, 세 번째는 화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법적 처리의 문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전쟁범죄를 처리하는 것, 나아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죄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일본정부의 수뇌가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며, 또한 상대국의 국민, 특히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포로라든지 종군위안부 등의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사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화해의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간의 화해의 문제와 이전에 전쟁 중에서 서로 싸웠던 장병, 부대, 군인들 사이의 화해의 문제가 있고, 일반 시민과 전직 장병 —포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라는 레벨에서의 화해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와 옛 영국군 포로 사이, 일본정부와 한국의 옛 위안부 사이의 화해 등 다양한 레벨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 처리 문제의 경우 영국이나 구 연합군과의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평화가 달성되었습니다.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평화조약 제 11 조로 이른바 동경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소) 이외에 연합국의 전쟁범죄법정 재판을 수락하였습니다. 동경재판에서는 A 급전범 25 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 중 7 명이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등 각지에서 이루어진 B, C 급전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약 5,700 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 934 명이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 재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좌측 : 아더 티더링턴 씨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하에서 “연합국국민 및 일본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방기하였다는 것이 법적인 입장입니다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평화조약 16 조에서 “중립국 및 일본의 동맹국에 있었던 일본의 재외자산, 또는 이와 동가의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이 규정되고, 이와 함께 재외일본자산을 접수한 300 만 5,000 파운드와 타이멘 철도(역자주: 2차세계대전 중 타이와 버마를 연결하던 철도)건설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금 17 만 5,000 파운드를 합산해, 포로였던 사람 1 인당 76.5 파운드, 민간억류자에게 48.5 파운드를 1952년에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극히 불충분한 것이었고, 많은 불만들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1994년, 마침 제가 런던에 근무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본군 포로였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 JLCSA(Japanese Labour Camp Survivors Association)의 회장 아서 티더링턴(Arthur Titherington) 씨가 다른 나라의 포로였던 사람들과 억류되었던 민간인 6인과 함께 도쿄지방법판소에 1인당 1만 3,000 파운드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동경지방법판소의 “국제법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결에 의해 원고가 패소하였고, 이어서 동경고등재판소에서 2000년 3월, 그리고 최고재판소에서 2004년 3월에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국정부는 법적으로는 일본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전후 50주년 기념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국내적으로 여러 논의가 발생하여, 영국퇴역군인회(Royal British Legion)가 중심이 되어 영국정부가 이들 포로출신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영국정부는 2000년 11월, 특별위로금으로서 포로였던 사람들, 혹은 배우자 등 유족들에 대하여 1인당 1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자국의 국내문제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경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 있어 사죄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대 총리가 여러 가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 기념일에 무라야마 총리대신의 담화 발표에 의해 사죄의 문제는 일단 일단락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영국에서 전후화해문제에 대해 다루었던 야마나시학원대학의 고스게 노부코(小菅信子) 교수는 『전후화해』(中公新書)라는 저서 속에서, 화해를 “강화 후, 혹은 평화가 회복된 후에도 이전의 적국과의 사이에서 서려있는 감정적인 마찰이나 대립에 대한 해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화해의 문제는 실제로 제가 런던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웠는가 하면, 이전에 일본군의 포로였던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포로였던 사람들에게 대사관원인 제가 화해하고 싶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일본정부의 공적인 기관이므로, 이전에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사관원과 구 일본군은 어떤 공통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반응으로 인해 정부와 포로였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직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이 정부 이외의 외부 지원자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이른바 촉매가 되어 화해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역시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상대국의 일반 여론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대책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영국부임이전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 부임하기 전인 1991년~1994년 사이, 외무성의 부보도관(副報道官)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사죄의 문제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돌아와 외무성 부보도관에 취임한 것이 1991년 3월이었고, 그 해 5월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대신과 동행하여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리가 외국을 방문하게 될 때 방문국의 현지 미디어, 혹은 제 3국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이후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연설에서 과거문제에 대해 “많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게 만든 우리나라의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reflection이라는 용어도 있으나 그와 다른 표현방법도 많습니다. 저는 영어 번역에 대한 의뢰를 받았기에 sincere contrition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외무성의 한 선배로부터는 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냐는 지적을 받았으나 BBC 등 제가 브리핑한 제 3국의 미디어에 속한 사람들은 contr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느 정도 참회라는 의미를 포함한 느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언론과 관련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사안은 위안부문제입니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喜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저도 동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위안부문제는 한일간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에게 미야자와 총리는 “마음속으로부터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해 7월,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어,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행한 조사의 중간발표 속에 위안부문제에 당시 일본정부의 관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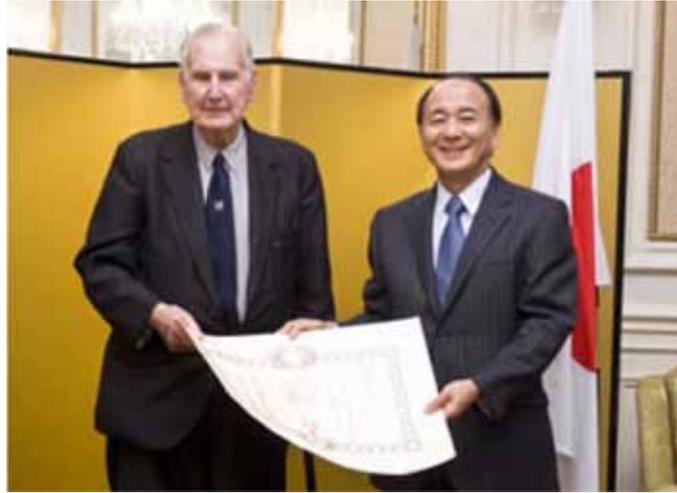
그 후 조사가 진행되어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안부문제에는 구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때와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던 때 모두, 저는 도쿄에 있는 외국 언론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영어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90분 정도에 걸쳐 극히 어려운 질문들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위안부 문제와의 관계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1993년 8월, 자민당 일당지배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 총리대신은 소신표명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가 행한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다시금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까지 역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질지도 모르는 의문점은 아마도 왜 전쟁이 끝난지 50년 가까이 지난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마주 대하여 어떤 방식의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이겠지만, 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의 점령이 이어졌습니다.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고 있던 시기 일본국내에서는, 태평양 전쟁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 태평양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동서냉전이 시작되자, 냉전구조가 국내에도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일본국내의 베를린 장벽”이라는 표현은 분명 극작가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씨가 꽤 오래 전에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국내 좌우대립의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좌측 : 서훈식에서의 필립 메이린스 씨

좌우대립의 쟁점이 되어버리자,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통해 콘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절차는 행해지지 못했고, 그러한 채로 1990 년대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자면, 중국, 한국, 혹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미국이나 영국, 혹은 민간인 억류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네덜란드인과의 관계는 그다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포로문제와 대일전승 50주년 기념

제가 런던 대사관에서 두번째 서열의 자리에 부임한 것은 1994 년 3 월이었고 그때부터 1998 년 1 월까지 약 4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 화해의 문제에 대해 관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우선 영국인 포로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찍혀있는 필립 메이린스(Philip Malins) 씨는 제 2 차세계대전 당시 버마전선에서 장교로 재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과 영국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일본의 옥일쌍광장(旭日雙光章)을 서훈받았습니다. 이 분은 올해(2012년) 4월 29일에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서훈식 때의 연설원고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이린스씨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버마전선에서 일본군의 전사율은 60% 였습니다. 이는 “살아서 포로가 되는 모욕을 당하지 마라”는 전진훈(戰陣訓)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전사율은 7% 였습니다. 한편,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장병은 약 5 만명으로 연합국 장병 가운데 포로가 된 숫자는 영국이 가장 많았고 사망률은 25% 였습니다. 독일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장병의 사망률은 5% 였습니다.

그리고 원폭 문제에 있어서 연합군 장병들은 원폭이 전쟁을 종결시키고 일본과 연합국 쌍방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일본인들은 원폭이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껍이 있기 때문에 독일과 비교할 때 일본과 영국의 전후화해는 꽤나 곤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린스씨는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1년 후에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화해야말로 과거에 싸웠던 쌍방모두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후화해의 문제는 1995년부터 비로소 영국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15일은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전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 저는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영국에 체재하였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1960년대와 비교하자면 1990년대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에 영국을 떠날 당시 런던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수는 2,800명이었습니다. 런던의 일본음식점의 수는 겨우 두 군데 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94년에 부임했더니 일본음식점의 수는 150개인가 160개까지 늘었다고 하여 도저히 다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2만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전체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수는 5만명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수가 왜 급격히 늘었는가 하면 1980년대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영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닛산 등 여러 일본 회사의 영국 투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경제와 산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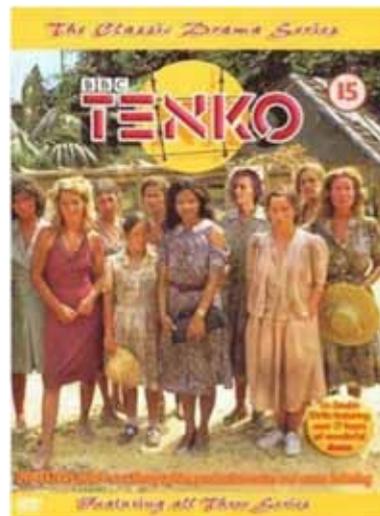
한편, 영국인 포로에 대한 잔학행위가 보도됨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전쟁이 끝난 후 50년이 지난 해가 시작되자, 연초부터 영국 미디어에서는 포로의 회상록 —저는 전쟁에서 이처럼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등과 같은— 이, 제 생각에는 거의 매일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5월, 연합군은 유럽전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럽전선에서 돌아온 영국군 병사들은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버마전선에서는 아직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게다가 영국군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버마전선의 장병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Forgotten Army 라고 부릅니다. 잊혀진 군대입니다. 이들은 영국 국민들로부터 “왜 이제서야 돌아왔는가” 라고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울분을 안은채 5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50년이 지나, 이 사람들의 복잡한 심정과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당시 영국정부인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은 전후 50년 기념일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5월 18일, 유럽과의 관계인 VE Day (Victory in Europe Day)에는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축전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8월 15일의 VJ Day(Victory

over Japan Day)에는 일본의 요인들을 초청하지 않고 영국 및 영연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부적인 행사로 다루었습니다.

쉐필드대학의 휴고 돕슨(Hugo Dobson) 교수는 고스게 노부코 교수와의 공저인 『전쟁과 화해의 일영관계사』(호세이대학 출판국)에서, VE Day와 VJ Day에 대한 영국 매스컴의 보도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보도를 보게 되면 VE Day에 대한 보도에는 네 가지 요소, 즉 회고와 화해와 향수와 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VJ Day의 보도에는 그 같은 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과거를 아직 떨쳐 버리지 못하던 느낌이었고 현재와 과거 사이의 선 긋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BBC 텔레비전 드라마
<점호 (Tenko)> 시리즈

일본의 전후 50주년과 무라야마 담화

일본 국내에서도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6월의 중의원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는 결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미디어에서는 “깊은 반성의 뜻”은 사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이 결의에 찬성한 사람은 중의원의원 509명 중 230인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있어, 과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일본국내의 의견은 아직도 분열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8월이 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기념일이 가까워졌고 이에 대한 영국국내의 논조는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번째는, 원폭이 전쟁종결을 위해 필요했다는 원폭긍정론입니다. 두번째는 원폭투하 당시 일본은 항복직전이었으므로 원폭은 지나친 것이었다는 논조였습니다. 당시 영국내의 분위기를 냉엄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BBC의 텔레비전 드라마인 점호(点呼 [Tenko])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점호라는 것은 매일 아침 행하는 점호를 뜻합니다. 싱가포르 함락 후 일본군 수용소에 억류된 영국인, 호주인 및 네덜란드인 여성이 일본군으로부터 치욕을 당한 일을 소재로 하여 1980년대에 방영된 드라마가 재방영된 것입니다.

이 때 저희들 주 영국 일본대사관은 도쿄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1995년 8월 15일에 총리가 분명한 태도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에 소재한 일본대사관으로부터도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그 이전인 8월 12일 경, 메이저 수상이 7월에 영국 보수당 당수로 재선된 것에 대해 무라야마 총리가 보낸 재선축하 편지 속에서 포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이 일본의 신문에 보도되었고, 당시 어딘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무라야마 총리에게 일본 기자가 갑자기 “메이저 수상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총리는 “아니, 그건 사과의 편지는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라고 대답한 일이 영국 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영국에서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13일, 14일 이틀간 BBC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등 모두 합하여 3회 출현하여, 무라야마 총리의 편지는 분명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의 주요한 포인트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its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여러 나라, 그 중에서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many countries, particularly to those of Asian nations)”, “그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 (express my feelings of deep remorse and state my heartfelt apology)” 입니다.

1995년 초부터 포로였던 사람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이러이러한 괴로운 일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던 4년 동안, BBC 등으로부터 126회의 인터뷰를 받았습지만, 이 당시만은 인터뷰를 삼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받게 되면, 포로였던 사람과 일대 일로 논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역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8월 15일에 총리가 분명한 담화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주지하는데 집중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8월 15일의 총리 담화는 일본시간으로는 8월 15일 아침이었고, 런던 시간은 8월 14일 심야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고 있는 BBC Radio 4의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Today라는 시사방송에, 후지이 히로아키(藤井宏昭) 대사가 나와서 총리의 대답은 각의결정에 기반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된 후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이는 영국인 포로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메이저 수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후지이 대사는 아침의 라디오 방송, 오후 1시부터는 프라임타임 뉴스, 밤 10시 30분 부터는 BBC 방송, 모두 세차례 출연하였고, 저 역시 다른 채널에 3회인가 4회 출연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8월 15일 당일, 런던에서는 VJ Day 식전이 열렸고, 버마 전선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킹검 궁전 앞을 행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그들의 울분과 고통에 보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날부터 영국 미디어는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에 대해 대사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았습지만,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Forgotten Army라 불렸던 것과 돌아온 자신들을 대우해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울분과 고통이 분출되어 이러한 카타르시스가 일단 종결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계에서 포로 등의 문제는 영국의 국민감정 차원에서는 일단락 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풀뿌리 교류

여기까지가 법적 처리와 사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화해라는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1995년 즈음부터 저희 런던 대사관 근무자들은 현 천황의 영국 방문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쇼와천황은 1971년 영국을 방문한 일이 있으나 현 천황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포로문제를 둘러싼 영국내의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 포로로서 고생했던 분들에게 화해하자고 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이전에 같은 전선에서 싸웠던 적과 야군 병사들끼리의 화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이가 히라쿠보 마사오(平久保正男) 씨입니다. 그는 임팔 작전에 종사하였고, 전후에는 마루베니(丸紅)에 근무하게 되어 런던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그가 적군이었던 영국군 병사 2명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90년, 영국에 “Burma Campaign Fellowship Group (버마작전동지회)”이 설립되었습니다. 회장은 이언 라일 그랜트(Ian Lyall Grant) 퇴역 소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영국의 유엔대사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버마작전동지회와, 일본의 전 버마작전 전우단체연락회의가 상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2월에는 일본과 영국 쌍방의 유지 36인이 함께 버마에서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돌아올 수 없는 전우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젊은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류가 있습니다. 일명 풀뿌리 평화교류계획이라 하여, 대사관으로서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로였던 사람들과 민간인 억류자의 가족 등 784인이 일본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한 활동에 관계된 178명이 영국을 방문했고, 일영합동위령방문이 4회 행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Pacific Venture 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많은 포로들의 출신지였던 서포크라는



메리 그레이스 브라우닝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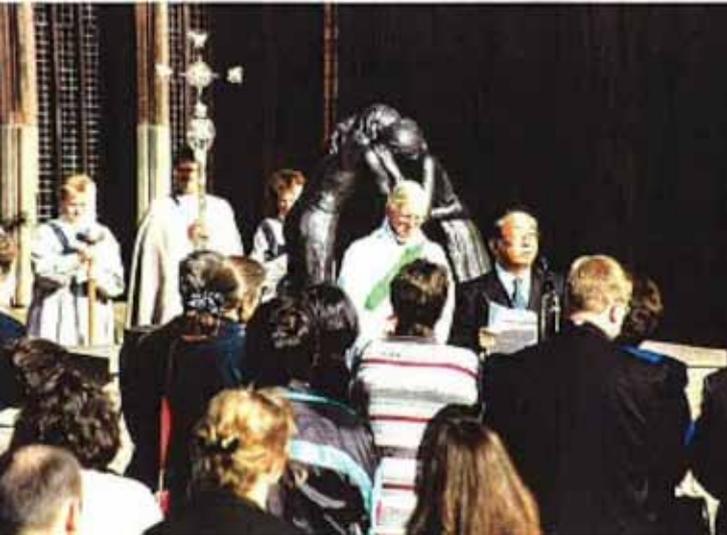
영국의 추도식전에서 꽃다발을 바치는 코스게 노부코 교수 (케임브리지 이브닝 뉴스의 기사)

지역에서 고등학생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던 메리 그레이스 브라우닝 (Mary Grace Browning) 여사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발안을 통해 영국인 전 포로들과 민간인 억류자들의 손자들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쪽에서 측면지원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약 380 명의 가족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로, 게이코 홈즈 (Keiko Holmes) 여사의 아가페 (Agape)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게이코 홈즈 여사가 태어나고 자란 미에현 기와쵸 (三重縣 紀和町: 당시 지명은 이루카 [入鹿])의 기슈 (紀州) 광산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영국인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세상을 떠난 16 명의 묘지들 (町)와 광산회사 측에서 만들어주었고, 전쟁이 끝난 후 지역의 노인클럽에서 줄곧 청소와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게이코 홈즈 여사는 영국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 분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1989년 영국인 포로 모임을 결성하는 일에 홀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소개한 후 포로였던 이들의 일본방문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50명 정도의 방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고스게 노부코 교수의 활동입니다. 고스게 노부코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당시 캠브리지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분은 게이오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서 함께 영국으로 와서 캠브리지대학 국제연구센터에 적 (籍)을 두고 계셨습니다. 1996년 11월, 저는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에 나온 예상치 못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Remembrance Sunday 라는 제 1차 세계대전 추도일의 식전에서 일본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꽃다발을 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즉각 그 여성이 고스게 교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캠브리지는 전쟁 기간 중 포로가 많이 나왔던 지역으로 대일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스게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계기로 캠브리지에서 포로였던 사람들과 일본인들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포피와 사쿠라’ (양귀비꽃과 벚꽃)



구 코벤트리 대성당에서 열린 영국, 미국, 일본의 화해의 식전



하야시 사다유키 대사가 코벤트리 대성당에서 헌화를 하는 모습

클럽이라는 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 8월에는 후지이 히로아키 주 영국 대사 부부가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 1997년 11월에는 캠브리지의 동료 학자들을 불러모아 포로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일영포로회의를 개최하였고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는 고스게 교수가 이와나미 서점에서 출판한 『양귀비꽃과 벚꽃(ポピーと桜)』이라는 책에 실려있었습니다만, 이 책에 저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화해의 행사가 열리는 경우 역시 화해의 심볼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들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다이아나 전 왕비의 장례식이라든지, 여왕의 즉위식이 열린 곳으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고스게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른바 영국의 기억과 전사자 추도의 총본산입니다. 1997년 8월에 버마작전동지회가 참석한 일영합동추도식도 여기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고스게 교수가 무명전사의 묘에 천 마리의 종이학을 바쳤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유명한 것이 코벤트리 대성당(Conventry Cathedral)입니다. 코벤트리 대성당은 1940년에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성당의 리처드 하워드(Richard Howard) 수석사제가 BBC 라디오에서 “전쟁이 끝나면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코벤트리 대성당은 화해의 세계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마침 50주년이 흐른 때에 옛 대성당의 유지에 평화의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상과 같은 것이 버진 아틀란틱 항공의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사장에 의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국제회의장에 기증되었습니다.

1997년 가을, 코벤트리 대성당의 존 페티(John Petty) 수석사제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최고수장인 에드먼드 브라우닝(Edmond Browning) 수좌주교가 영국에 와서 영미일의 화해의 식전을 열고자 하니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에 참석하여 화해의 상 앞에서 함께



1998년 1월 14일자 <더 선> 지의 기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해 Remembrance Sunday에 하야시 사다유키(林貞行) 대사가 일본의 대사로서는 처음으로 코벤트리 대성당에 헌화하였습니다.

이 때 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였던 세 분과 악수를 한 일이 영국의 BBC 라디오, 그리고 THE TIMES 등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코벤트리 대성당에서 일본과 영국의 화해 식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중,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임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마 작전에 종사했던 전 장교들이라든지, 게이코 홈즈 여사라든지, 메리 그레이스 브라우닝 여사와 만났던 전 포로들, 또는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화해의 동심원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참전했던 영국 군인들 전체에 대해 이 화해의 동심원을 넓혀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7년이 저물어가던 무렵 왕립영국퇴역군인회(Royal British Legion)를 방문하여 그레이엄 다우닝(Graham Downing) 회장에게, 사실 이러한 화해의 동심원이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우닝 회장도 큰 관심을 보여 자신들도 여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회원 12명과 함께 1998년 3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포로였던 사람들과 민간인 억류자들에 대해 영국 내에서 영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결과적으로 영국정부가 1인당 1만 파운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1월 9일, 제가 런던을 떠나기 4~5일 전에 그때까지 교류하던 사람들을 대사관으로 모시고 이임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의 대표였던 아서 티더링턴씨를 비롯하여 포로였던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셉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화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4년 가까이 해온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런던을 출발하기 며칠 전이라 한창 바쁠 때였는데, 도쿄의 외무본성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타블로이드지의 기자출신으로, 블레어 수상의 보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알레스테어 캠벨(Alastair Campbell) 씨로부터 타블로이드지(대중지)의 대표인 『The Sun』이라는 신문에 하시모토 총리가 투고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제 의견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앞서부터 미디어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영국에서 미디어 대책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타블로이드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하는 매체입니다. 1995년에도 역시 대중지가 최선봉에 서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우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꼭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월 14일에 「Britain and Japan must go forward together」라는 하시모토 총리의 메시지가 지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JAPAN SAYS SORRY TO THE Sun」이라는 표제가 보입니다만, 이는 지극히 타블로이드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 당시 하시모토 총리가 기고한 내용은, 무라야마 담화와 같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는 것, 일본과 영국의 구 군인들에 의한 동남아시아에서의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는 것, 전 포로 및 그 손자들의 방일을 이전까지의 40~50명에서, 연간 80~1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he Sun』은 이를 두고 마음을 담은 사죄(heartfelt apology)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도쿄에 돌아와 외무보도관이 되었고, 더 이상 직접 이 문제와 관련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황께서 1998년 5월 영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천황 내외가 런던 거리를 퍼레이드 하실 때 이를 환영한 군중의 수는 2만 5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00명 정도의 전 포로, 억류자, 관계자 등의 항의데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황 내외를 향해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신문에는 이러한 행동은 결코 손님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데모에 관한 비판적인 투서도 있어서, 그래도 1995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기에, 미디어 대책으로서 지바 가즈오 前 주 영국대사에게 공식 대변인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지바 대사와 주 영국대사관 공사 등이 하루에 수십 회에 이르는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당시 내세우고자 했던 메시지는, 먼저 천황 내외의 방문은 일본과 영국 사이에 과거에 없었던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 포로 출신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평화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과 영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 그리고 사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수반이 표명한 바 있다는 점(무라야마 담화)입니다. 또한 화해를 향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그렇다면 일본과 영국 간의 전후 화해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한 것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이지만, 그 후로도 이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 제 자신이 관여하고 있던 시기를 되돌아보자면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았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95년의 VJ Day 50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영국정부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대처해 간 점입니다. 먼저 보상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정부와 공통의 입장을 취하면서, 한편으로 여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8월 15일에 무라야마 총리가 해야 할 담화의 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저는 이와 같은 화해의 문제에 임할 때에, 정부와 정부 레벨에서 상대국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중점적으로 에너지와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유지와 자원 봉사자 등에 의한 화해의 발안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화해의 동심원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부정적 견해를 중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코벤트리 대성당과 같은 상징적인 시설에서 거행된 행사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뇌들만이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시민들끼리만 화해하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양한 레벨에서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임했을 당시 영국의 대일감정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동심원이 확산되어 가면서, 포로문제에서 야기된 대일감정의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두 번째로 부임하였던 4년간, 저는 대사관 관계자로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양호한 일영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이 문제 만을 별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전반적인 문맥 안에서 정의를 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일영화해가 어느정도 참고가 될지는 제 자신 역시 바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의미에서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

질의



사회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타오카 독일과 일본의 대응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측에서 볼 때, 생활권이 독일은 같은 유럽에 있고, 일본은 아시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종차별적인 것이 관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패전후의 대응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누마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한편, 제가 느낀 바는, 전후 관계의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첫째로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스와 완전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독일 스스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미묘한 부분이므로 그다지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히 과거와 단절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 자신으로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나, 점령시대 그리고 이어진 냉전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가 다시 외무성의 대변인이 된다면 이야기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유럽의 국가라는 것은, 서로 수 많은 전쟁을 거쳐 이기거나 지거나 하였습니다. 몇 백 년 동안, 그리고 더 긴 기간 동안. 그러므로,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이기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지만, 지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역시 전쟁이 끝난 후 대처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코벤트리 대성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국과 독일 화해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코벤트리가 독일군의 폭력으로 파괴된 것과 같은 시그드레스텐이 영국공군에 의해 폭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쌓여 이루어 화해를 진전시켜갔다는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사적인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축적 하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과의 차이라고 말한다면, 제 생각은 이상과 같은 관점입니다.

Sim 오늘은 정말로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과 질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과의 사이에 이 같이 긴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과의 사이에서조차 50수년이라는 긴 프로세스가 있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중국과 한국등의 이웃 나라와의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출신국인 싱가포르도 꽤나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볼 때 이상하게도 그렇게 반일감정이란 것을 강하게 인식한 적이 없었고, 단지 무라야마 수상이 싱가포르 전쟁기념관에 헌화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가령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 일본이 협력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겠는지요?

누마타 사실 싱가포르에서 contr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씀 드렸습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가이후 총리가 연설을 하기 전날 밤에 저는 BBC 등의 특파원을 초대하여 식사를 하면서 연설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BBC 싱가포르 특파원이, 1주일쯤 전에 리관유 수상(당시 싱가포르의 수상)과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일본은 과거의 문제에 관해 contrition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우연의 일치이지만, 제 영어번역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리관유 수상이 일본의 과거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혈채문제(血債問題)가 있었고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경제협력이랄까, 그것이 싱가포르의 발전에 상당히 공헌하였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그 부분을 중화시켰던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우선 정부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없도록 맞추어가면서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 이 최초의 부분부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각국의 상대적인 힘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층 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영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실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일본군사사학회라는 곳의 부탁으로 5월에 같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의 중의원결의에서는 500명 이상의 중의원 중 찬성표가 230인, 즉 과반수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어 영국에서는 무라야마 담화가 집중적으로 미디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국내에서는 지금도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압력은 없었습니까?

누마타 저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론, 나아가 위안부에 대한 고노 담화 재검토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당사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가면서 해결에 접근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처럼 쌓아 올린 재목들을 도중에 무너트려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995년 6월의 국회결의에 대한 것입니다만, 그 단계에서는 왠지 어중간하게 되어버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당 출신의 총리대신이라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지이 대사나 저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는 분명한 각의결정을 거친 것이며, 무라야마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 “그건 이상하다”라는 논의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8월 15일은 매우 큰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로서 무엇인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 후, 일본국내정치 쪽이 크게 변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누마타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적으로 답습한다는 것은 계승되어 왔었습니다. 자민당정권 때는 계속되었고, 민주당정권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굳이 말씀 드리자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영토문제가 발생하였고, 영토문제와 역사문제가, 우리들이 그에 관계되지는 않았으나, 관계된 것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리액션이 나와있다고 보입니다. 제 자신은 역시 그러한 문제에 대해 내셔널리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외무성과 정치가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 어떤 역학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정치가가 바뀌면 전부 바뀌어 버리는 것일까요? 외무성이 가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합니다만 어떠신지요?

누마타 제가 퇴직 한 것은 5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의 어려운 상황 정도로는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시다만, 제 옛 동료들은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행간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顔海念 한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1995년에 무라야마 총리가 처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사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천황의 의견이나 허가를 청했는지, 거기에 대해 전혀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마타 저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담화를 발표하신 후에 보고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천황은 상징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황과 황후 두 분이 2009년 7월에 캐나다를 방문하셨을 때 공식 대변인으로서 2주간 함께하였고, 천황을 대신하여 캐나다 미디어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으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 4월에 천황 성혼(成婚) 50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때 천황께서는 “저는 지금의 헌법 하에서 상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헌법 상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것과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황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행동으로 표출해가면 좋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천황과 황후께서 내리신 결론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봉사한다” 라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진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서 피난소가 된 체육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고, 이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과 정치 차원의 이야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도 설명하였습시다만, 과거의 전쟁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천황은 분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천황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 23일, 이 날을 알고 계십니까? 오키나와전이 끝난 날입니다. 오키나와전에서는 오키나와 현의 주민 중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8월 6일 히로시마입니다. 그 다음이 8월 9일 나가사키, 이어서 8월 15일입니다. 이 네 날짜에 천황께서는 항상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천황이 관여하는 형태는 이같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하나의 가정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려 할 때 정부가 상담을 요청했다면 천황께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키야마 저는 쇼와 16년(1941) 생입니다. 따라서 전쟁 후에 교육을 받았고 이어서 일본의 전후 번영을 몸으로 향유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영국과의 사이에서도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전후 쇼와시대를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평양전쟁에 관한 것도 전후 50년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지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국과의 문제를 뒤집는다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역시 미정리인 채로 놔둔다면 앞으로의 일본 젊은이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일본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때 쇼와시대사에 대한 제대로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국과 패전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마타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약간 난처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처음부터 전후의 총결산이라든지, 전후 청산을 한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은 역시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스야 가즈키(粕谷一希) 씨나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 씨 등이 전후사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쓴 책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학도로 동원되어 전장에서 사라진 분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잃었는가, 천황을 위해 죽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이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이 부분이 결여된 채 먼 미래로 가버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점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식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회 반대로 일본, 중국, 한국의 공통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좀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마타 제가 잘 알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 선생님 등이 그 일을 하고 계시지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陳景揚 대만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대만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다지 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국은 수백 년 간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도 지기도 했다는데, 그렇다면 포로에 대한 배상요구도 몇 백 년 동안 반복해왔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는 어째서 1990년이라는 타이밍에 나왔던

것입니까?

누마타

수백년간 포로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은 상당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로서도 밝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 두번째 질문, 왜 1990 년대가 되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는가라는 배경에는 영국 내의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 드렸던,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왔더니 “잊혀진 사람들” 이 되어 있었고, 유럽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큰 환영을 받았는데 왜 이제야 돌아왔냐는 취급을 받은 데 대한 한이 남았던 것입니다. 돌아온 이후 전쟁 후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직업을 찾아 온갖 노력을 다 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20 세 정도였다고 한다면 90 년대에는 70 세가 되었겠군요. 이미 일을 은퇴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 만큼은 도저히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마음이 증폭되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이것도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전 포로 분들 중에서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대개 병사 출신입니다. 어폐가 있습니다만, 영국의 계급사회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장교 출신들은 전쟁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어 생각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병사 출신들은 고통스런 기억 뿐으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혀져서 1990 년대에 표면으로 방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吳正根

질문은 아닙니다만 제 느낌을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런던올림픽 폐회식날에 영국의 퇴역군인과 그 가족 20 명 정도가 인도에서 발생했던 일본과 영국의 전쟁에 대한 화해의식을 가졌다는 한국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Sim 선생님이 말씀 하신대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통합적인 역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가르치고, 영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제대로 된 역사에 기반하여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마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제 자신도 아키야마씨와 두 살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분명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채 성장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꽤 오랜 기간 담당해왔기 때문에, 어째서 영국과의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음에도 미국과의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점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영국 쪽이 포로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일관계 쪽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심도있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던 사실과, 여기서 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부정적인 문제가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되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980년대~90년대에 걸쳐 경제적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지면서 좋은 이미지도 생겼지만 그 동안 응어리져 있던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broken』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지요? 미국인 장거리 선수로 올림픽에도 출전하였던 인물이 후에 미국공군에 입대하고, 일본군에게 격추되어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헤이와지마(平和島)에 있던 포로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이곳에서 심한 처우를 당하고 전쟁 후에도 그는 일본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는데, 어느 날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으로 인해 귀의하면서 점차 종교를 통해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는 상당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관계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일부러 영국의 이야기를 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4년간 런던에 있으면서 그 4년 동안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이 문제에 쏟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말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스게 노부코 교수님은 SGRA에서 이전에 강연을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대사관과 외무성 분들을 알고 계시지만, 누마타씨야 말로 가장 정통하시고 NPO와 시민 활동을 이해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스게 교수님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꼭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강사약력

누마타 사다아키 (沼田貞昭, ぬまた さだあき)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옥스포드대학 석사(철학, 정치, 경제)

1966년 외무성 입성

1994~1998년, 주 영국 일본대사관 특명전권 공사

1998~2000년, 외무보도관

2000~2002년, 주 파키스탄 대사

2005~2007년, 주 캐나다 대사

2007~2009년,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 소장

가지마건설주식회사 고문. 일본영어교류연맹회장

SGRA 리포트 No.0066

「아쓰미장학생 모임」 강연록
일영전후화해 (1994-1998 년)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 112-0014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 3-5-8
Tel:03-3943-7612 Fax:03-3943-1512
SGRA 홈페이지 : <http://www.aisf.or.jp/sgra/>
이메일 : sgra-office@aisf.or.jp

발행일 2014 년 3 월 20 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무단전재금지 . 본지 기사에 관한 문의 및 인용시에는 연락해 주십시오 .